

<2021년 11월 20일 토요일 새벽, 주 말씀>

* 새벽 설교를 할 때는

항상 <주일말씀 주제>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,
그다음에 <잠언>을 전해 줘야 된다.

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,
<주제>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‘그에 해당되게’ 깨닫는다.

* 설교자는 <잠언>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,
잠언을 한 절,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.

1. <영계>는 ‘생각으로 가는 세계’ 다. 먼저는 <생각>으로 가고,
그러다 ‘혼’ 으로 가고, ‘영’ 으로 간다. <생각>이 가다 말면,
‘혼’ 도 ‘영’ 도 못 가게 된다.

2. <영계>는 ‘생각 실상 세계’ 다.

3. <영계>는 ‘생각의 안테나’ 가 좋아야 가게 된다.

4. <성령>이 ‘영계’ 나라. 성령을 부르고 이야기하여야.

5. <가장 가까이 있는 대(大)영계의 실상>은 ‘성령님’ 이시다.

6. 하나님은 후회하려면 ‘심판’ 을 안 하신다. ‘후회할 심판’ 을
하시겠느냐. 고로 <심판>은 ‘전지전능하신 존재자’ 만 하느니

라.

7. 사람이 <답>을 찾으려 다니다 보면, ‘지구 한 바퀴’를 돌게 된다. 10년, 20년이 걸린다. - <성령님>이 ‘답’이다.
8. (성령님) <내가 찾는 길>은 ‘네 옆’에도 있다.
9. 성령님은 <자기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>으로 비유해서 깨닫게 해주신다. 그래야, 깊이 깨닫고 인식하기 때문이다.
10. 이 말씀을 쓰면서 성령이 인도하여 쓰게 됨을 깨닫고,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고 물으니, “<생각>으로 인도한다. <나 성령의 생각>을 주어 ‘그 생각’으로 행하게 하며, ‘네 생각’을 쥐고 인도한다.” 라고 말씀하셨다.
11. (성령님) 누구든지 <자기 생각>과 <의지>와 <사고>를 비워야, <나 성령의 생각>을 주어 ‘성령으로’ 인도하느니라.
12. <운동하는 자>가 ‘몸’이 풀려야 잘 뛰고 달리듯이, <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>도 ‘마음’과 ‘생각’이 풀려야, 감동을 받고 생각이 잘 나서 집중해서 잘 받아쓰게 된다.
13. <기도>할 때도 하는 김에 ‘마음’과 ‘정신’을 집중해서 해야, ‘한 단계 더 높은 단계’로 깊이 기도하게 된다.

14. <일>도 어느 정도 해야 손에 잡히듯이, <기도>도 어느 정도 해야 ‘마음’ 과 ‘생각’ 이 잡혀 기도하게 된다.
15. <기도 줄>을 잡고 또박또박 기도해야 된다. <기도 줄>을 놓치면, ‘잡생각’ 이 나고, ‘의식’ 을 잃게 되고 졸리고, ‘중심생각’ 을 잃고 기도하게 된다.
16. <기도 줄>이란, ‘기도하는 내용’ 이다. <기도 내용>을 잊으면, ‘기도’ 를 놓치게 된다.
17. <나무에 올라가는 자>나 <암벽을 타는 자>가 ‘줄’ 을 놓치면 미끄러져서 다시 올라가야 하듯이, <기도>도 ‘기도 줄’ 을 놓치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.
18. <기도>를 좋아서 해야 된다. <기도>는 ‘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’ 이다. ‘인간으로서 최고 영광된 축복’ 이다.
19. <시대 말씀>은 ‘주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께 받은 말씀’ 이다. “생명을 위해 기도해라.”, 혹은 “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.” 하신 말씀들을 생명시하고 행해야, 문제가 해결된다.